

# 추량의 조동사 「う」의 표기 성립배경에 관한 고찰

— 부정(打消)의 조동사 「ん(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수향\*

suhyang1022@naver.com

## Contents

1. 들어가며
2. 추량의 조동사 「ん(む)」과 부정의 조동사 「ん(ぬ)」
3. 분석자료 및 고찰방법
4. 각 조동사의 출현양상
5. 「う」 표기의 성립배경
6. 맺으며

## Abstract

「推量・予想」「勧誘・期待・命令」「意志・決意・希望」「假定・婉曲」の意味用法を担当した古典語推量の助動詞「む」の表記は周知の通り「ん」を経て「う・よう」に変化し、現代に至っている。「ん」の表記変遷に関する従来の研究では、「ん」が「う」の発音に似ているので自然に「う」に移行したという音韻論からの解釈が中心である。しかしながら、「ん」表記の変遷を音韻変化のみで説明しようとするのは「う」発生について十分に把握し切っていない側面があり、表記形態の変遷を詳しく把握するためには他の角度からのアプローチが必要である。このような問題意識から本稿では、同じ「ん」の形態で使われていて、現代語にも残っている打消の助動詞「ず」の終止形・連体形の表記「ん」と比較、分析して助動詞「う」の表記が成立する背景について考察を行った。

分析対象は口語と文語の区別がはっきりしている近世後期の口語資料で、洒落本の『遊子方言(1770)』、『辰巳之園(1770)』及び人情本の『春色梅児誉美(1832~33)』である。その中から推量の助動詞「ん」・「う」と打消の助動詞「ぬ」・「ん」の用例を検出し、会話文と地の文に分けて使用頻度と使用様相を調査した。そしてそれぞれの文体の特徴について検討した。その結果、打消の助動詞「ん」の方が推量の助動詞「ん」より言語の運用性が高く、影響力が強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その理由としては三つのことが挙げられる。第一、推量の助動詞「ん」は文語の性格が強い文体で、ほとんどが地の文に用いられており、会話文の場合も一

\* 고려대학교 BK21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 연구교수, 일본어학 전공  
본 논문은 2010년도 고려대학교 BK21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연구비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部の文章だけに表れるという特徴がある。したがって口語体が増えるにつれ姿を消すようになる。反面、打消の助動詞「ん」は「ぬ」に比べて口語性が強いので文の中で使用の制約が少なく、そのことから使用範囲がだんだん広がった。第二、打消の助動詞「ん」は「ます」や「ございます」などに接続し「ません」、「ごいません」の形態として使用が拡大し、普遍化した。第三、打消の助動詞「ん」は多様な品詞に接続して使われたが、推量の助動詞「ん」は一部の品詞のみに接続して使われたので運用性が低かった。

以上の理由とともに「ん」が「う」に発音しやすい側面があったので、推量の自動詞「ん」の表記は自然に「う」に移行したと推論できる。

**Key Words** : 推量の助動詞、打消の助動詞、文体的特性、接続関係、運用性(추량의 조동사, 부정의 조동사, 문체적 특성, 접속관계, 운용성)

## 1. 들어가며

<추량·예상> <권유·기대·명령> <의지·결의·희망> <가정·완곡>의 의미용법을 담당하였던 고전어 추량의 조동사「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ん」을 거쳐「う·よう」로 표기형태가 변화하여 현대에 이르고 있다.

「む」에서「う」로 표기가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土井(1928)의 [mu]→[m]→[u]의 설과 橋本(1969)의 [m]→[ū]→[u]의 설이 인정되고 있다. 土井는 m가→u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n을 경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료하지 않다고 하며 n의 과정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밖에 인정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橋本는 m→u의 중간에는 m→ū→u와 같은 비모음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래의 연구에서는 표기형태에 변화가 생기는 요인을「ん」이「う」와 음운적으로 비슷하다는 특징에서 찾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표기의 변천을 단순히 음운변화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은「う」의 발생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표기형태 변천의 動因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운론적인 관점 이외의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나, 「む」 표기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법론적인 관점에 주목하여「む」의 표기이행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는 같은 「ん」의 형태로 사용되어 현대어에도 그 쓰임이 남아있는 부정의 조동사 「ず」의 終止形・連体形인 「ん(ぬ)」의 표기에 주목하여 두 조동사의 사용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조동사 「う」의 표기가 성립되는 배경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 2. 추량의 조동사 「ん(む)」와 부정의 조동사 「ん(ぬ)」

추량의 조동사 「ん」의 어원은 「む」이며, [mu]→[m]→[n]→[u]의 음운상의 변화에 따라 「む」-「ん」-「う」로 표기가 이행된다. 「ん」의 발생 시기는 일반적으로 平安시대로 보고 있으며, 此島(1973)에 따르면 「ん」이 「う」와 음운적으로 비슷한 특성이 있어 平安시대 말기에 「ん」이 「う」로 변화하였으며 室町시대에 이르면 구어에서는 「う」의 사용이 일반화된다.

부정의 조동사에서 「ん」의 형태가 보이는데, 조동사 「ず」가 終止形・連体形の 형태로 나타날 때는 「ぬ」와 함께 「ん」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ん」의 출현 시기는 鎌倉시대초기로 보이며, 江戸시대가 되면 「ん」이 「ぬ」와 병행하여 사용되다가 점차 「ん」의 사용률이 높아진다.<sup>1)</sup> 현대어에서는 西部방언에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통어에서는 정중의 조동사 「ます」의 부정형인 「ません」에 나타나고 있다. 「ぬ」와 「ん」도 추량의 조동사 「ん」과 「う」처럼 문체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ぬ」는 주로 지문에 사용되고 「ん」은 회화문에 사용되는 특성이 있다.<sup>2)</sup> 또한 前田(1964)에 의하면 江戸시대에 있어서 전반기에는 「ぬ」가 우세하고, 후반기에는 「ん」이 우세하였으나, 격식을 차린 대화에서는 후반기에도 「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 (1) 豈世の中只此お長に限らんや。父母にはやくはなれし人は、他人の為に恥しめられ、いぢめらるゝことこれにまされる人もあらん。 (春色 68:14)
- (2) わすれねばこそ思ひ出さず、とは名妓高尾が金言ながら、互に思ひおもわ

1) 此島(1973)、p.163.

2) 吉田(1971)、p.169.

るゝ、深き中ほど愚智になり、少しはなれて在ときは、もしや我身をわすら  
 るゝ、ことあらんかと幾度か、思ひ過しも恋の癖、其身にならねばなか++  
 に他目に見てはいとゞしく、阿房らしくも馬鹿らしく、笑ふは実に恋しらず  
 哀れも知らぬ人といふべし (春色 57:13)

(3) 此糸「ヲヤそうぎますか。そんならなにかの支度をし伊して立んとするを、  
 鬼兵衛は引止 (春色 226:6)

(4) 平 もう腹は立んハ。おゆるしハ。時にもうおれは歸らふハ。(遊子 293:15)

(1)과 (2)의 예는 동사「あり」에 접속한 형태이다. 똑같이 「あらん」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1)의 예는 「これ以上の人も数あることだろう」로서 <추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2)는 「もし私のことを忘れられることはないか」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3)과 (4)도 마찬가지로 (3)의 「立ん」은 「立とうとするのを」로 해석되어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4)의 「立ん」은 「もう腹は立たない、立たない」로 해석되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위의 용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조동사는 같은 표기형태를 나타내며 終止形과 連体形이 동일하며 접속형식 또한 둘 다 未然形에 접속하므로 형태만으로는 그 의미가 <추량>인지 <부정>인지 구별할 수 없다. 두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ん」의 문장을 이해할 때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즉 원래는 <추량>의 의미로 해석되었던 것이 <부정>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대어의 문장어로 남아 있는 「-んがために」의 경우는 「ん(む)」이 남아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云わんばかり」, 「泣かんばかり」와 같은 「-んばかり(ぬばかり)」는 「ん」이 혼동되어 사용된 전형적인 예이다.

(5) 泣かんばかりに たのみ込んでいる。<sup>3)</sup>

(6) 一から十まで英国が模範であると云わんばかりの顔をして、

(夏目漱石・虞美人草)<sup>4)</sup>

湯沢(1951)에 따르면 이때의 「んばかり」의 「ん」은 본래 추량조동사 「む」이며

3) 倉持(1969)、p.520.

4) 鈴木(2001)、p.599.

<부정>이 아닌 <추량>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む」에서 변환 「ん」과 「ぬ」에서 변환 「ん」 사이에서 혼동이 생겨 「んばかり」에서 <부정>의 「ぬ」를 사용한 「ぬばかり」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5)의 「泣かんばかり」는 본래는 「泣くかと思われるほど」(울까하고 생각될 정도로)의 의미였으나 현재는 「今にも泣きそうな状態で」(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상태로), 「泣くか泣かないばかりに」(울듯 말듯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6)의 「言わぬばかり」는 「言わないかと思われるほど」(말하지 않을까하고 생각될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言うだろうと思われるほど」(말할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가 본래의 의미이다. 현재는 「ん」은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현대일본어에서 「ん」의 형태는 <부정>이나 <금지>의 의미<sup>5)</sup>에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원래는 <부정>의 의미이나 <추량>의 의미로 전도된 예도 보인다.

(7) 「いやはや、この男にかかっちゃかなはんよ……怪しからん男だ

(真船豊 遁走譜, 6)

「けしからん」의 「ん」이 고전문에서는 원래 「けしからず(ぬ)」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냈으나 현재에는 「けしからう」로 <추량>의 의미로 유추되기 쉽다.<sup>7)</sup>

비슷한 시기에 부정의 조동사 「ん」과 추량의 조동사 「ん」의 표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병존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ん」이 현대 일본어와 같이 주로 <부정>의 의미로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 또한 室町시대무렵부터<sup>8)</sup>라는 점은 두 조동사의 사용에 있어 많은 혼동이 발생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두 조동사의 출현빈도 및 사용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う」 표기의 성립과정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そんなこと言わん方が良い」과 같은 부정(打消)의 의미로 또는 「-てはいかん/-てはならぬ」과 같은 금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6) 전계서 2), p.174.

7) 전계서 2), p.174.

8) 전계서 2), p.172.

### 3. 분석자료 및 고찰방법

추량의 조동사 「ん」이 「う」로 이행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ん」과 「う」가 공존양상을 보이며 부정의 조동사에서 「ん」의 출현이 빈번해지는 시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문어자료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음운변화의 양상이 자료에 그대로 나타나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구어자료를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세시대 후기의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근세시대는 구어와 문어의 구별이 뚜렷해져 각각의 언어체계에 따른 이중적 언어생활이 유지된 시기로서, 특히 후기 江戸語에 이르러서는 구어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현대 일본어에 가까운 언어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추량의 조동사와 부정의 조동사 각각의 사용양상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어자료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음운변화의 양상이 자료에 그대로 나타나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구어에 나타나는 특징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구어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구어와 문어의 대립이 뚜렷한 시기라고 해도 사실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어 문어 속에 구어적인 요소가 혼재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洒落本, 滑稽本, 人情本의 경우는 지문에서는 문어를 주체로 하고 구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회화문에서는 구어가 주체이기는 하나 문어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추량의 조동사 및 부정의 조동사에서의 「ん」의 사용양상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회화문뿐만 아니라 지문도 고찰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분석 자료는 江戸시대의 통속소설(戯作) 중 洒落本の 『遊子方言(1770)』, 『辰巳之園(1770)』과 人情本の 『春色梅児誉美(1832~33)』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찰방법은 각각의 작품에서 終止形, 連体形으로 사용된 추량의 조동사 「ん」, 「う」와 부정의 조동사 「ぬ」, 「ん」를 사용한 용례를 검출하여 회화문과 지문으로 나눈 후 각각의 사용빈도와 사용양상을 조사·분석하였다.

## 4. 각 조동사의 출현양상

### 4.1. 추량의 조동사 「ん」, 「う」

각 자료에 나타난 「ん」과 「う」의 출현빈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용례 200에 중 「ん」은 27예 밖에 나타나지 않은 반면 「う」는 173예가 나타나 전체적으로 「う」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량 조동사 「ん」·「う」의 출현양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추량 조동사 「ん」·「う」의 출현양상

자료명	표기형태	ん		う		계
		회화문	지문	회화문	지문	
遊子		0	0	20	0	20
辰巳		0	3	57	2	62
春色		2	22	93	1	118
합계		2	25	170	3	200
		27		173		

<표 1>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근세후기는 「ん」이 대부분 「う」로 이행되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회화문과 지문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ん」은 지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う」는 회화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화문이 주류를 이루는 『遊子方言』에서는 「ん」이 1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점을 통해서도 「う」가 구어적인 문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ん」이 사용된 용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8) 永代寺の寺中に有。九郎助(くろすけ)稲荷に、仲丁のいなりを譬(たとへ)、  
松田稲荷は、黒江町のいなりをいわん。 (辰巳 297:14)
- (9) 衣紋坂(ゑもんざか)には、櫓(やぐら)下の火(ひ)の見(み)を譬(たとへ)ん。  
(辰巳 297:16)
- (10) よね「ナニ小用か。おいらもいこふや○下りかゝりたる丹次郎、続けておる  
お長がこゝろ、そも米八と落合て、いかなるわけとなるやらん。作者  
もいまだ承知せず。嗟かゝる時は好男子も、また人知らぬ難渋あり。

必竟この後何とかせん。看官よろしき段取あらば、はやく作者に告給  
はんことをねがふ而已。 (春色89:9)

(11) 何ゆゑに召とらへたるや、定めてよからぬ子細ありて、見退しがたき分ならん。  
(春色 201:5)

(12) 其義は何か知らねども、既に旧悪あるものならば、岡八もろ共文注所に召  
つれさせん。其方の手に捕へし彼奴が悪事は何事ぞ (春色 201:6)

(8)~(10)은 지문에 사용된 「ん」의 예이며, (11)(12)는 회화문에 사용된 예이다. (10)의 경우는 「この続稿をどうはこんだらよいものか」의 의미로 작가가 눈 앞의 독자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체의 형식을 빌려 앞으로 글을 어떻게 전개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본인의 난처한 입장을 전달하는 방백의 형식이다. (11)은 화자가 추측을 하며 말하는 내용이며, (12)는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는 문장이다. 이와 같이 「ん」은 대부분 지문에서 사용되었으며, 회화문에서도 상대방을 의식하여 말을 주고받는 형식이 아니라 긴장감을 표현하거나 상대에게 격양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등의 특수한 장면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지문에 주로 사용되는 점과, 회화문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화자의 심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특수한 성격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점을 통해서 「ん」이 일반적인 회화문에서 사용되는 구어적인 문체와는 달리 문어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う」 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ん」과 「う」가 혼재되어 나타나다가 근세시대에 이르러 「ん」은 문어체, 「う」는 구어체라는 구분이 뚜렷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근세시대에는 「ん」 표기의 대부분이 「う」로 이행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세의 문장에서도 사용빈도는 높지 않으나 작품에 따라 「ん」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坂梨(1982)는 근세에는 대부분 「う」가 사용되었으나 상황 장면에 따라 「ん」이 이용되기도 했으며, 무사언어(武家ことば)에 「ん」을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矢島(1979)도 「ん」이 사용되는 경우는 【특수 장면·특수한 심리 상황에 있는 경우】 나 【독백·방백·비난】 등, 보통 회화를 재현하는 것과 달리 浄瑠璃의 「낭독물(語り物)」과 같이 독특한 역할이 필요한 표현에 선택되



는 경향이 높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ん」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세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기보다 작가 고유의 개성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으며 작가가 의도적으로 긴박감이나 긴장감을 고조시켜 문장효과를 높이려고 한 문장에 「ん」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ん」이 일부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도 근세시대 후기가 되면서 회화적인 표현이나 새로운 표현이 많이 등장함에 따라 점차 「う」의 사용률이 높아진다.<sup>9)</sup>

다음은 「う」의 용례에 대해 살펴보겠다.

(13) 平 いや、ちと新町邊(しんちやうへん)に、見そめたのがある。これへ今夜は  
ゐて、ちとたまには、もたせるも、面白(おもしろ)かろうではないか。

(遊子 285:7)

(14) むすこ あいさやうで御座ります。どふもたばこを呑(のま)んは、わるいも  
ので御座ります。それで 此間(このあひだ)、ずいぶんたばこのみ  
ならをうと存(ぞんじ)ます。

(遊子 277:6)

(15) 志厚 久しぶりだに、鳥渡(ちよつと)參(まい)ろふかと思ひやす。

(辰巳 299:9)

(16) 次郎 そんな事いわずと、佃(つくだ)のひがしやへでも、行(いき)ませふ。

(辰巳 311:8)

(17) 藤 「ヲ、さだめてびつくりしたろうが、今途中で聞た喧のやうす、くやし  
かろうがコレ米八、マア氣をしづめてよく聞ツし。 (春色 206:13)

(18) 善 「それさへお聞申せば、直に方をつけますが、モシわたくしやア此本の  
作者に憎まれて ても居りますかしらん、野暮な所といふと引出して  
つかはれます。しかしマア++善惡の差別がわかつておめでたい。い  
づれ近日、何もかもおさまる様になりませう、 (春色 237:6)

(13)~(18)은 「う」가 사용된 문장이다. 「う」는 대부분 회화문에서 나타나 98.2%의 사용비율을 보인다. 전술한 「ん」의 문장과 비교해 볼 때 「う」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회화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근세시대에는 「ます」의 사용이 활발해지는데 이에 따라 (16), (18)과 같은 「ませう」의 형태가

9) 矢島(1979)、p.37.

다수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지문에서는 전체 173예 중 3예밖에 나타나지 않아 1.8%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春風(はるかぜ)は、花(はな)のあたりを、除(よき)て吹(ふけ)、心(こゝろ)づ  
 からや、うつろふと見む。 (辰巳 299:1)

(20) 棧留(さんとめ)の布子(ぬのこ)に、小伯(こはく)縞(は)の帶、手に海黄(かいき)  
 縞(は)の風呂敷(ふろしき)を持、勝手(かつて)に居(い)やうとするを、  
 (辰巳 305:9)

(21) おやこの世にあるならば家にかゝへし奉公人、なに手をさげてたのまれう。  
 およそおさなきおりからにおやにはなれてそだつほど、かなしきものゝある  
 べきかと、わかりし心におゐらんは、ひとしほふびんとなみだぐみ  
 (春色 65:14)

지문에 나타난 「う」도 회화문과 특별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근세후기의 洒落本, 滑稽本, 人情本과 같은 작품에서는 회화문과 지문에서도 각각 구어체와 문어체가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위의 용례는 지문이지만 구어체의 특징이 나타나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 추량의 조동사 「ん」과 「う」의 사용빈도와 사용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う」의 형태가 증가하는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데, 「ん」에서 「う」로 표기가 이행되면서 「ん」과 「う」 사이에 문체적 특성이 뚜렷해진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만약 「ん」과 「う」 사이에 문체적인 특징이 뚜렷하지 않았다면 굳이 「ん」의 표기가 축소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어체의 문장이 많아지면서 추량의 조동사 「ん」은 古語的이고 딱딱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어, 회화문에서도 작가가 문장효과를 높이려고 의도한 문장에만 주로 사용되는 등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반면에 「う」는 이러한 제약이 없었기에 문장에서의 사용이 자유로웠고 이러한 영향으로 「う」의 사용이 확대되고 보편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4.2. 부정의 조동사 「ぬ」、「ん」

각 자료에 나타난 「ぬ」와 「ん」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305예 중 「ぬ」가 179예, 「ん」이 126예로서 「ぬ」의 사용빈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회화문과 지문을 구별하여 살펴보면 「ぬ」는 회화문보다는 지문에 많이 나타나며, 「ん」은 회화문에서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ぬ」보다는 「ん」이 구어적인 문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lt;표 2&gt; 부정의 조동사 「ぬ」·「ん」의 출현 양상

자료명	ぬ		ん		계
	회화문	지문	회화문	지문	
遊子	18	6	28	2	54
辰巳	5	8	15	0	28
春色	50	92	77	4	223
합계	73	106	120	6	305
	179		126		

다음은 「ぬ」와 「ん」이 사용된 용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2) 通り者 あゝゑい。これで大(おほ)きにゑい。船中(せんちゅう)にてだん++、  
つもる物(もの)がたりがある。おいしい色男か、埋木(うもれぎ)とな  
るによつて、だん++おれが傳授(でんじゆ)で、善二坊(ぜんじほう)  
のやうな色男を、揚卷(あげまき)の助六(すけむすむろ)がやうに、つくり直(なを)  
さにやならぬ。(遊子 273:11)

(23) 通り者 行(いく)からにや、はやいの、おそいのと、いふこつちやない。おれ  
と行(いく)といふと、掘(ほ)ってもはやく歸(かへ)られぬ。  
(遊子 275:10)

(24) 如雷 イヤ美(うつく)しくなつた。久しく見ぬが、とんだ茶(ちや)がまに成  
おつた。どふだ、地色(じいろ)でも出來(でき)たか。(辰巳 301:6)

(25) 如雷 まじめになりて、すめぬ顔にて居る。お長心付て、いろ++とつとめる。  
(辰巳 310:6)

(26) お役人さまがお出があればさぞこわからうと思ふから、情心(じやうしん)でおいら達がや

さしく聞ば、情強くしらぬといやアしかたがねへ。 (春色 112: 1)

(27) またその人の身にとりては、他に知られぬ恋の道、此おもむきにはかはると  
も実は同じ男女の情、色は思案の外とはいへど、物の哀れをこれよりぞ、  
しらは邪見の匹夫をして、心をやわらぐ一助とならんか。 (春色 60:16)

(22)~(27)은 「ぬ」가 사용된 예로서, (22)~(24)는 회화문에 사용된 예이고  
(25)~(27)은 지문에 사용된 예이다. 「ぬ」는 주로 지문에 사용되고 있으나, 회화  
문에 사용될 경우에는 격식을 차린 말투나 古語的인 어투의 느낌을 살릴 때 또  
는 의식적으로 딱딱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에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22)  
(23)의 문장은 通り者(도락가)인 노인이 나이 어린 젊은이에게 하는 말투로서  
폼을 잡으며 하는 말이라는 것을 의식하여 작가가 의도적으로 「ぬ」를 선택하였  
다고 볼 수 있다.

(28) 客 今夜は後(のち)には、大ふ賑(にぎやか)に成ろうぞ。さっき道(みち)で呂  
州(ろしう)に逢(あふ)た。これも來(こ)よふといふた。それで今夜は藤兵  
衛を呼(よば)ん。こゝがおれが粹(すい)じや。呂州が來てゐるに、藤兵  
衛にうたわせるは、互(たがい)におもしろくない。よつて呼(よば)ん。  
(遊子 288:14)

(29) 平 いやどふもかへりがおそいから、合點(がってん)がいかん。さりながらど  
ふぞこよふ。 (遊子 294:6)

(30) 女 わたしも、芳(よし)町の俵屋(たわらや)にも居(い)やす、新道の二文字  
(もんじ)やにも、三四年居(い)したが、あのやうな若衆買(わかしゆかい)  
は、見(み)やせん。 (辰巳 311:16)

(31) 五四 「サアモシねへは知れてゐるが、紙入といふ証古があつて、お阿ばアさ  
んの心の底にも、藤さんがわすれて置て行たろうと、少しは思ひもし  
ようけれど、うぬが僮相(どうそう)でとられた金、取つくしまがねへゆゑに、邪  
も非(ひ)もかまはず、藤さんを相手取氣(あひま)になつたのは、持(も)まへの強欲(きやうよく)  
もの、どうも仕(し)かたがございせん、 (春色 197: 3)

(32) よね 「そふお言(い)なはいましては誠(まこと)に私(わたし)が済(す)ません。 (春色 124:3)

(28)~(32)는 회화문에 나타난 「ん」의 용례이다. 회화문에서 「ん」은 95.2%의  
높은 사용률을 보인다. 이 중에서도 근세 후기의 자료에는 「ます」에 접속하는

「ません」의 형태와 동사 「す」에 접속한 「せん」의 형태가 다수 나타나, 「ありません」, 「ござりません」, 「ございません」 및 계조사 「や」와 호응하는 「せん」 등의 쓰임이 활발해진다. 이러한 형태는 현대어의 「ません」에 이어지는데 부정의 조동사 「ん」이 표기에 정착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 (33) すると東洲が、「ぬしの名をおしりなんせんか。番町さんと申やす。」といふと、  
(遊子 278:8)
- (34) とかく埜(らち)があかん、といゝ++、枕をほち++はおきながら  
(遊子 291:1)
- (35) 「どふでもいゝわなといはれてもとよりこれのみし男とはかく気がおかれ、  
あいそづかしもされんかとなみだぐみ (春色 57:3)
- (36) わすれねばこそ思ひ出さず、とは名妓高尾が金言ながら、互に思ひおもわ  
るゝ、深き中ほど愚智になり、少しはなれて在ときは、もしや我身をわすら  
るゝ、ことあらんかと幾度か、思ひ過しも恋の癖、其身にならねばなか++  
に他目に見てはいとゞしく、阿房らしくも馬鹿らしく、笑ふは実に恋しら  
ず哀れも知らぬ人といふべし (春色 57:13)
- (37) 且筆のついでに申す。此一条お長が苦心のくやしきを見て、父母のことを  
大事になし、必ずしも仰にそむき給ふな。豈世の中只此お長に限らんや。  
(春色 68:13)

(33)~(37)은 지문에 나타난 「ん」의 용례이다. (33)(34)의 경우는 상대방이 한 말을 인용한 부분이며, (35)(36)은 화자의 심리를 묘사한 부분이다. 그리고 (37)은 작가가 부연설명을 하는 내용으로서 독자에게 말을 하는 형식의 문장이다. 위의 용례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ん」이 지문이지만 대화형식의 문장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통해 구어적 성격이 강한 문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근세후기 자료의 회화문에서 부정의 조동사는 대부분 「ん」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ぬ」가 격식을 차린 딱딱한 느낌이 드는 문장에 사용되는 특징이 있는 반면, 「ん」은 부드럽고 일상적인 어투의 문장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추량의 조동사 「ん」, 「う」와 부정의 조동사 「ん」, 「ぬ」의 사용빈도와 사용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근세후기에는 이미 부정의 조동사 「ん」이 추량의

조동사「ん」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때의「ん」은 대부분 부정의 조동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구어적인 성격이 강한 문체가 사용영역이 넓었으므로 이로 인해 잔존하는 확률도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정의 조동사에서는「ん」이 구어적인 성격이 강하므로「ぬ」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일이 많았으며, 추량의 조동사에서는「う」가 구어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사용이 확대되면서「ん」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ん」자체만을 본다면 구어적 성격이 강하여, 문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부정의 조동사「ん」이 남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 4.3. 추량의 조동사「ん」 및 부정의 조동사「ん」의 접속관계

추량의 조동사「ん」과 부정의 조동사「ん」이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여 같은 형태로 존재하다가 부정의 조동사「ん」이 추량의 조동사「ん」보다 사용빈도가 높아 현대 일본어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4.1, 4.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구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문체적인 특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정의 조동사「ん」이 추량의 조동사「ん」보다 구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어체의 문장이 증가하면서 문장에서 사용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부정의 조동사「ん」이 사용영역이 넓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는데, 사용영역의 범위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으로는 품사와의 접속관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품사에 접속되는 성질이 있다면 문장에서의 활용도도 높았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추량의 조동사「ん」과 부정의 조동사「ん」의 접속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품사의 접속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추량의 조동사「ん」과 부정의 조동사「ん」의 활용형을 분류한 후 접속하는 품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조동사 모두 終止形の 형태가 많이 나타나서 추량의 조동사에서는 전체 27예 중 終止形이 19예(70.4%), 連体形이 8예(29.6%)가 나타났으며 부정의 조동사에서는 전체 127예 중 終止形이 80예(62.9%), 連体形이 47예(37.1%)가 나타났다. 또

한 終止形보다 連体形에 접속하는 품사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추량의 조동사와 부정의 조동사 「ん」이 終止形과 連体形으로 나타날 때 이에 후속되는 단어를 품사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활용형별 접속하는 품사

구분	자료명	활용형 접속 품사	終止形					連体形							
			격조사	접속조사	접속 ×	종조사	계	접속조사	격조사	명사	형식명사	계조사	계조사 호응	종조사	계
추량 「う」	遊子		0	0	0	0	0	0	0	0	0	0	0	0	0
	辰巳		0	0	3	0	3	0	0	0	0	0	0	0	0
	春色		6	2	8	0	16	1	2	4	0	1	0	0	8
	계		6	2	11	0	19	1	2	4	0	1	0	0	8
부정 「ん」	遊子		0	0	18	0	18	3	0	0	0	1	2	5	11
	辰巳		0	1	4	0	5	1	1	0	0	0	8	1	11
	春色		0	0	29	28	57	11	1	0	1	0	3	9	25
	계		0	1	51	28	80	15	2	0	1	1	13	15	47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추량의 조동사 중 連体形에 접속하는 품사를 살펴보면 명사에 접속하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격조사 및 접속조사, 계조사에 호응하는 예도 나타났다. 終止形의 경우는 문을 끝맺는 형태 외에 격조사 「と」와 접속조사 「と」에 접속하는 예도 보였다.

부정의 조동사는 連体形의 경우 접속조사와 종조사에 접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조사에 호응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 밖에 극소수이기는 하나 격조사, 형식명사, 계조사에 접속하는 용례가 보였다. 終止形은 추량의 조동사와 마찬가지로 문을 끝맺는 단순한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종조사에 접속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부정의 조동사 「ん」이 추량의 조동사 「う」에 비해 連体形의 사용률이 높고, 連体形에 접속하는 품사의 종류도 다양하여 문장에서의 활용도, 즉 운용용성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량의 조동사의 활용형 분포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lt;표 4&gt; 추량의 조동사 「ん」의 활용형분포

자료명 \ 표기형태	終止形	連体形	계
遊子	0	0	0
辰巳	3	0	3
春色	16	8	24
합계	19(70.3)	8(29.6)	27(100)

( )안의 수치는 사용률(%)을 나타냄.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終止形형의 사용률이 70.3%인 것에 반해 連体形의 사용률은 29.6%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회화문과 지문을 구별하여 살펴본 결과, 회화문에서는 다른 품사와의 접속이 없는 단순한 終止形의 형태만 나타났다. 이것은 추량의 조동사 「ん」이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추량의 조동사 「ん」에 접속하는 품사별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8) しかし此方はその気でも、心の人の望、お由どのはじめおそのさん、藤兵衛が本妻にするのは心にそまぬかへ、トいはれて飛たつうれしきは、何にたとへん方もなく、おそのお由が喜びにも、涙さきだつ夢ごころ。(春色 219:16)
- (39) 他の端唄も身にあたる、縁の糸目の切よとは、花をちらさぬ辻うらか、とは思へども藤兵衛と、わかれてなんのながらへて、また来る春を待れうぞと、繰かへしたるお由がなげき、母は義理ある藤兵衛に、身を保せんと思ふゆゑ、無理を承知のねづり言 (春色 216:2)
- (40) そはいかにとなれば後見の鬼兵衛多くの借金を引請唐琴屋の家を相続なすを恩にかけ、お長に迫りていやらしく難義させ、所詮おさまらざるを推量して、お長が艱難辛苦を退れさせんがため、以前唐琴屋の番頭なりし忠兵衛といふもの、金沢の商人となり居る由を知り、殊に其身の親元も金沢なれば両方へ文を添て祖師さまへ参詣の時を得て途より直に落せしなり。(春色 72:11)
- (41) 作者もいまだ承知せず。嗟かゝる時は好男子も、また人知らぬ難渋あり。必竟この後何とかせん。(春色 89:9)



(38)~(41)은 추량의 조동사 「ん」의 連体形의 용례이다. 「ん」에 후속하는 단어를 품사별로 살펴보면, (38)은 명사 「方」, (39)는 격조사 「と」, (40)은 접속조사 「が」, (41)은 계조사 「とか」에 호응하는 경우이다. (40)의 「-んがため」와 같은 예를 제외한 連体形 「ん」의 형태는 현대어에는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連体形의 감소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수향(2008)에 의하면 추량의 조동사 「ん」은 중세후기부터 終止形과 連体形의 사용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 후대로 내려갈수록 終止形의 형태는 증가하는 반면 連体形의 형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근세전기가 되면 더욱 현저해지는데, 근세후기의 자료에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連体形의 감소경향에 따라 접속되는 품사도 몇 가지로 제한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부정의 조동사 「ん」의 접속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부정의 조동사 「ん」의 활용형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부정의 조동사 「ん」의 활용형 분포

자료명 \ 표기형태	終止形	連体形	계
遊子	18	12	30
辰巳	5	10	15
春色	57	25	82
합계	80(62.9)	47(37.1)	127(100)

( )안의 수치는 사용률(%)을 나타냄.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127예 중 終止形은 약 62.9%, 連体形은 37.1%의 사용률을 보여 추량의 조동사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終止形의 사용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連体形의 형태가 지문에서는 5예에 불과하고 42예가 회화문에서 나타났는데, 추량의 조동사 「ん」의 連体形이 회화문에서는 1예도 나오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겠다. 連体形의 수가 많고 접속하는 품사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사용영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통해 부정의 조동사 「ん」이 문장에서의 운용성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의 조동사 「ん」의 連体形에 접속하는 품사별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2) しかも其ばんは、いそがしいばんで御座りましたのに、歸りませんから、歸りますと、大きに、ふり付(つけ)てやりんした。 (遊子 283:13)
- (43) 女房 はやく、おちやうちんを付ろ。申おざうりが、ちがいはいたしませんか。 (遊子 286:12)
- (44) 緑(みどり)の柳腰(やなぎごし)、紅(くれない)の下緒(したひも)、いろ++行(ゆき)こふ人そゞろなる中に、けしからぬ声(こゑ)の按摩(あんま)はり、鮓賣(すしうり)が鱒(あぢ)のすう小鰭(こはだ)のすうと呼(よぶ)も、しやれとやいはん (遊子 287:11)
- (45) お長 どつこへも、行(いき)はしやせんが、隣座敷(となりざしき)で、煙草(たばこ)のんだ斗さ。 (辰巳 310:14)
- (46) 志厚(しこう)此間(このあいだ)は石燕(せきゑん)が花(はな)の會(くわい)に、屋鋪(やしき)に鞠(まり)がありやして、散(さん)にわか氣(き)づめでぶら++心(こゝろ)。是ではいかんと、親玉隠(おやたまかく)れの、ちよんの間(ま)と出(で)かけやした。 (辰巳 299:8)
- (47) 蝶 「ア、どうぞこれから姉さんや私の力になつてくださいませ。まことにモウ心ほそくツてなりませんといふは、どうやら身勝手らしく聞ゆれど、これへつらひなき娘の人情にて憎べからず。 (春色 174:10)
- (48) 「アレサ嘘じやアありませんものを、憎らしい (春色 175:2)

(42)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조사 「から」에, (43)은 의문을 나타내는 종조사 「か」에 접속하는 경우이다. (44)(45)는 계조사 「や」, (46)(47)은 인용을 나타내는 격조사 「と」에 접속하고 있다. (48)은 형식명사 「もの」에 접속하는 예이다. 이들 접속관계는 현대 일본어에도 나타나는 것으로서 현대어와 동일한 사용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44)(45)와 같은 예는 「誰も私が歌っているのを聞きやしない」, 「私は弱いからみんなのヒーローになんかなれやしない」등과 같이 강조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48)과 같은 예도 「大してかわいくもないものをかわいいと言ってしまう」, 「黙っていれば分からないものを…」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 추량의 조동사와 부정의 조동사의 활용형 분포 및 連体形의 접속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두 조동사의 사용양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추량의 조동사 「ん」보다 부정의 조동사 「ん」이 품사와의 접속관계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부정의 조동사 「ん」이 문장에서의 활용범위가 넓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う」 표기의 성립배경

추량의 조동사 「む」에서 변화한 「ん」과 부정의 조동사 「ず」의 終止形·連体形인 「ん」은 둘 다 未然形에 접속하므로 형태상으로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ん」의 표기가 성립하여 병존하였으므로 두 조동사를 사용할 때 혼동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영향력이 적은 조동사가 본래의 발음과 유사한 다른 발음으로 변화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추량의 조동사 「ん」과 부정의 조동사 「ん」의 문체적 특징을 조사하고 사용빈도와 사용양상을 비교·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부정의 조동사 「ん」이 운용성이 높아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추량의 조동사 「ん」은 문어적인 성격이 강한 문체로서 대부분 지문에서 사용되고 회화문의 경우에도 일부의 문장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어, 점차 회화문에서의 사용이 감소하게 되었다. 반면에, 부정의 조동사 「ん」은 「ぬ」에 비해 구어적인 성격이 강하여 문장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점차 사용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 ② 근세전기부터 활발히 나타나기 시작한 「ます」, 「ごきます」 등에 접속하여 「ません」, 「ごさいせん」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부정의 조동사 「ん」은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보편화되었다.
- ③ 언어의 운용성을 고려해 볼 때 부정의 조동사 「ん」은 여러 가지 품사에 접속하여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으나 추량의 조동사 「ん」은 일부의 품사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사용영역이 넓지 못했다. 그러므로 부정의 조동사 「ん」이 추량의 조동사 「ん」보다 실용성이 높았으며 영향력이 더 컸다.

이상의 이유와 함께 「ん」이 「う」로 발음되기 쉬운 음운상의 특성 때문에 추량

의 조동사 「ん」은 자연스럽게 「う」로 이행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 6. 맺으며

추량의 조동사 「ん」이 「う」로 표기가 변화한 배경에 대해 종래의 연구에서는 주로 음운사적인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표기변화의 원인을 단순히 음운사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표기가 이행되는 과정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문법형식의 의미와 운용방식의 관점에서 추량의 조동사 「う」의 성립배경을 살펴보았다.

고찰방법으로는 표기형태와 접속형식이 동일하며 비슷한 시기에 성립하여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부정의 조동사 「ず」의 終止形·連体形인 「ん」과의 비교를 통해 사용빈도 및 사용양상을 파악하고 각각의 문체적 특징을 규명하였다.

고찰결과 문체의 특성상 부정의 조동사보다 문장내의 사용에 제약이 커서 사용영역이 한정된 추량의 조동사는 점차 언어의 운용성이 낮아지고 영향력이 작아지면서 음운변화 현상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う」로 이행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는 현대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근세후기 江戸語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향후에는 「ん」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중세후기 무렵부터의 자료 분석을 통해 조동사 「う」의 성립배경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이수향(2008) 「日本語助動詞「む」에 관한 通時的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31.
- 倉持保男(1969) 「古典語現代語助詞助動詞詳説」, 学灯社, p.520.
- 国語学会編(1976) 「国語史資料集-図録と解説」, 武蔵野書院, pp.8-10.
- 此島正年(1973) 「国語助動詞の研究」, 桜楓社, p.163.
- 坂梨隆三(1982) 「第五章近代の文法Ⅱ(上方篇)」, 『講座国語史 4 文法史』, 大修館書店, pp.496-

497.

- 鈴木英夫(2001) 『日本語文法大辞典』 明治書院、p.599.
- 土井忠生(1928) 『口語の推量の助動詞「う」の発生』 『国語国文の研究』 文献書院、pp.52-63.
- 中村幸彦 校注(1962) 『春色梅児誉美』 日本古典文学大系 64、岩波書店、pp.42-238.
- 橋本信吉(1969) 『助詞・助動詞の研究』 岩波書店、p.392.
- 前田勇(1964) 『近世上方語辞典』 東京堂出版、p.1212.
- 水野 稔 校注(1958) 『遊子方言』 『黄表紙 洒落本集』 日本古典文学大系 59、岩波書店、pp.269-294.
- \_\_\_\_\_ (1958) 『辰巳之園』 『黄表紙 洒落本集』 日本古典文学大系 59、岩波書店、pp.296-318.
- 矢島正浩(1979) 『近松世話物における意志・推量ノ終止形残存の意義』 『国語学研究』 28、東北大学文学部国語学研究刊行会、pp.28-40.
- 湯沢幸吉郎(1951) 『現代口語の実相』 勉誠出版、p.220.
- 吉田金彦(1971) 『現代語助動詞の史的研究』 明治書院、pp.169-174.

- ❖ 투고일 : 2010. 6. 30.
- ❖ 심사일 : 2010. 7. 14.
- ❖ 심사완료일 : 2010. 8. 2.